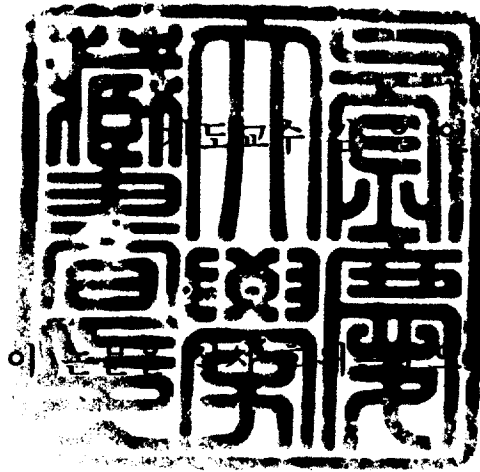


석 사 학 위 논 문

영어 전치사 over의 인지론적
의미 분석



이순영 부경대학교에서 제출함

2006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 영문학과

이 순 영

이순영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6년 2월

주 심 언어학박사

위 원 언어학박사

위 원 언어학박사

박 순 혁

안 수 웅

김 은 일



목 차

영문초록	iv
1.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
2. 이론적 배경	4
2.1 다의어	4
2.2 원형이론	7
2.3 인지문법	8
2.3.1 영상 도식	10
2.3.2 탄도체와 지표	11
2.4 은유	13
3. over의 의미 분석 및 의미망 구성	15
3.1 over의 기본적인 의미	15
3.1.1 위쪽	15
3.1.1.1 수직 · 비접촉 · 정적	16
3.1.1.2 동적	18
3.1.1.3 접촉	21

3.1.2	활모양	24
3.1.3	덧음	29
3.2	확장된 의미	33
3.2.1	영향	33
3.2.2	극복	35
3.2.3	초과	36
3.2.4	반복	38
3.2.5	수단	39
3.2.6	종료	40
3.2.7	원인	42
3.3	over의 의미망	45
4.	결론	47
	참고 문헌	49

그 립 목 차

<그림 1> ‘위쪽’의 일반적 도식	12
<그림 2> 탄도체가 지표의 위쪽에 위치한 수직·비접촉·정적인 관계...	16
<그림 3> 1차원적 탄도체가 지표의 수직선상에 위치한 관계	17
<그림 4> 탄도체의 영향력이 지표의 면적보다 큰 관계	18
<그림 5> 탄도체가 동적이며 지표가 수평인 비접촉 관계	19
<그림 6> 탄도체가 동적이며 지표가 수평·수직인 비접촉 관계	20
<그림 7> 탄도체가 동적이며 지표가 수직인 비접촉 관계	21
<그림 8> 탄도체가 동적이며 지표가 수평인 접촉 관계	22
<그림 9> 탄도체가 동적이며 지표가 수평·수직인 접촉 관계	22
<그림 10> 탄도체가 동적이며 지표가 수직인 접촉 관계	23
<그림 11> 탄도체가 3차원의 지표를 넘는 접촉 관계	24
<그림 12> 탄도체가 3차원의 지표를 수직으로 넘는 비접촉 관계	25
<그림 13> 탄도체가 지표를 180도 회전하는 관계	26
<그림 14> 탄도체가 지표를 360도 회전하는 관계	26
<그림 15> 탄도체가 지표의 여러 방향으로 이동하는 관계	27
<그림 16> 수평·수직인 지표와 접촉 관계인 종점의 의미 관계	28
<그림 17> 탄도체가 지표의 위를 덮고 있는 정적인 관계	29
<그림 18> 탄도체가 지표의 옆이나 아래쪽에 위치한 관계	30
<그림 19> 다수의 탄도체가 넓은 범위로 흩어져 있는 정적인 관계 ...	31
<그림 20> 탄도체의 이동 경로가 지표 위를 덮는 관계	32
<그림 21> 전치사 over의 의미망	45

Abstract

A Cognitive Analysis of the Meanings of the English Preposition 'Over'

Lee, Soon-young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ung National University

This current research attempts to analyze the meanings of the English preposition 'over', more specifically from a cognitive grammar perspective, the polysemous property which the preposition 'over' holds. It attempts to clarify how the meanings of 'over' are interconnected and explain the relationships of the various meanings through image schematic transformations and metaphorical extensions. Notably, this is to investigate the interrelations between the natural senses and the extensional and transformational senses from a cognitive linguistic viewpoint.

This study focuses on postulating that the English preposition 'over' has the polysemous attribute that the senses are related, often in such similar and peculiar ways which we are not always aware and that perhaps more than one sense is interacting at the same time. So this

paper tries to illustrate the cognitive and subjective meanings of the English preposition 'over' and its polysemous attribute.

The English preposition 'over' has a prototypical sense which expands to different senses. There are three basic meanings associated with 'over': above, arc- like and covering. The central meaning among them is above. The spatial sense is most often encountered in spoken and written form, and the temporal sense and abstract sense are employed metaphorically.

When the essential meanings of 'over' are expressed through metaphors, they hold temporal and abstract meanings: influence, overcoming, excess, repetition, a means, ending and cause. Presently, metaphors use very specific meanings to clarify extensional and abstract meanings. Consequently, the many senses of 'over' are not mutually exclusive but interrelated.

Until now, it is true that we have acknowledged prepositions simply as function words to modify content words and memorized them unconditionally. Thu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scaping from customary learning and studying English prepositions in an appropriate way by understanding their core meanings and extensional and transformational process under cognitive grammatical constructs.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한국의 학습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전치사의 올바른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한국 학습자들은 전치사를 문장의 주요 요소라기보다는 단지 내용어를 보충하거나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왔으며, 전치사의 사용을 관용적인 표현으로 간주하고 이를 암기하는 방식으로 학습해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영어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 전치사와 관련된 오류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전치사 사용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영어에 있는 전치사가 한국어에는 없으며 또한 전치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기동(1998)은 이전의 전통 문법에서는 전치사의 의미를 함께 사용되는 동사나 형용사 또는 명사의 의미로 풀이한 예가 많으며, 구조주의 문법에서는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와 같은 단어는 내용어(content word)라고 일컫고 전치사는 내용은 없고 단지 문장 속에서 기능만 갖은 기능어(function word)라고 부르고 있다(소순무 1987). 또한 변형 생성문법에서는 전치사를 고유한 의미는 없고 구조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Bolinger(1977)와 Langcker(1983)를 필두로 시작된 인지문법(Cognitive Grammar)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전치사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지문법의 의미론적 연구가 종전의 연구와 다른

점은 전치사가 자체의 고유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다른 형태소들을 연결해주는 역할만을 하는 분석 방법에서 탈피하여 전치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기동(1998: 9-11)은 각각의 전치사는 그 자체의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여러 문장에 쓰인 전치사의 의미들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같은 전치사로 표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Bolinger와 Langcker가 제안한 인지문법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Collins COBUILD English Dictionary 사전에 나열되어 있는 over의 예문 일부분을 발췌 선택하였다. 둘째, over의 기본의미를 중심으로 각 의미들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기본 의미와 이를 기초로 확장된 의미를 인지적 접근 방식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셋째, over의 연구를 통해 학습자들이 보다 쉽게 상황에 알맞은 전치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over가 지닌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다의어의 개념 및 의미구조를 설명하고 over의 다의성 연구의 기초가 되는 Rosch(1977)의 원형이론을 정리한 후, Langacker(1983)의 인지문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또한 over의 의미 확장의 주요 기제가 되는 Lakoff & Johnson(1980)의 은유에 대해 관찰함으로써 over의 인지적 의미와 각 의미들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제3장에서는 over의 실제 의미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의미적인 측

면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는 over가 전치사, 부사, 접두사 등의 여러 문법 범주를 가지기는 하지만 over의 의미 분석에 있어서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실제로 각 문법 범주들 간에 동일한 의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미 분석에서는 문법적 형태를 연구하기 보다는 over가 가진 다의적 특성을 고려하여 over의 다양한 의미를 인지언어학적으로 분석하여 구성하고 그 다양한 의미들 간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또한 분석한 의미들을 토대로 의미망(sense network)을 형성하여 over의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에서부터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의 과정들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본 논문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간략히 요약·정리하고 over의 의미 분석을 통한 학습자들의 over의 의미에 대한 학습 방향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over 분석에 사용된 인지언어학의 이론적 장치들을 정리한다. 먼저, over가 지닌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다의어의 개념과 의미구조를 설명한다. 둘째, over의 다의성 연구의 기초가 되는 Rosch의 원형이론을 정리하여 한 범주 내에는 가장 좋은 구성원이 존재하며 그 성원과의 유사성을 가지고 범주를 인식한다는 것을 관찰한다. 셋째, Langacker(1987)의 인지문법을 살펴보고, over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영상 도식(image schema) 및 탄도체(trajector)와 지표(landmark)의 의미를 설명한다. 넷째, over의 의미 확장의 주요 기제가 되는 Lakoff & Johnson(1980)의 은유에 대해 관찰한다.

2.1 다의어

영어에서 빈도수가 높은 기본 어휘에 속하는 낱말은 거의 모두 여러 가지의 뜻을 갖는다. 대표적인 예로 전치사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의 전치사는 모두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다의어현상(polysemy)이라 하고 이런 단어를 다의어(polyseme)라고 한다. 영어에서는 이런 현상이 아주 보편적이며 특히 전치사는 거의 모두 다의어로 보인다. 다의어 'over'의 의미구조를 규명함에 있어 원형이론(prototype theory)의 입장을 취한다. 이 입장에서는 단어를 범주로, 개별 의미들을 그 범주의 구성원으로 본다. 따라서 그 개별 의미들 사이에 같은 범주로 묶여질 수 있는 공통성과 연계성이 있으면 이 공통성과 연계성이 그 범

주의 특성 자질이라고 본다. 이러한 특성 자질들을 고루 갖추고 있는 개별 의미가 그 범주의 원형(prototype)이라는 것이다.

한 단어가 둘 이상의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의미들이 어떤 모습으로 구조화 되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의미구조를 통해 다의어를 분석해야 한다. 다의어에 대한 의미구조 접근 방법은 크게 핵 의미(core meaning)접근 방법, 의미 연쇄(meaning chains) 접근 방법, 의미망(meaning network)접근 방법이 있다. 핵 의미란 다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이 핵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는 한 단어의 여러 의미로부터 핵 의미를 추출하고 핵을 바탕으로 의미 확장 현상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다의어를 핵 의미 구조에 따라 분석한 사례는 Caramazza & Grober(1976)과 Allerton(1979)에서 볼 수 있다(임지룡 1999). 핵 의미는 다의어의 과정에서 초기단계에서는 핵 의미를 바탕으로 진행되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는 핵 의미로 포괄할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 경우 다의어는 연쇄의 방식으로 확장되게 되는데 의미연쇄 구조란 다의어가 의미 연쇄로 구조화 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Wittgenstein(1958)의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의 은유와 일치한다. 다시 말해 한 단어속의 각 의미들은 인접요소끼리 공통부분을 가지지만 전체를 망라하는 의미 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Lakoff(1987)는 Wittgenstein(1958)의 가족유사성¹⁾ 개념을 이용하면 복잡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도 다의어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다고 하였다. 가족유사성은 그 의미들이 의미의 연쇄를 통해 관련되어지는데

1) 가족유사성이란 어떤 가족의 성원들이 서로 비슷한데 그 비슷한 방식이나 정도는 가지각색이라는 것이다. 즉, 같은 체격, 얼굴형태, 머리카락의 색깔, 눈빛, 성격 등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징은 모두 가지각색이다. 그러나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속성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한 단어 속의 각 의미들은 인접요소끼리 공통부분을 가지지만 전체를 망라하는 의미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abc) \rightarrow B(bcd) \rightarrow C(cde) \rightarrow D(def)$$

위와 같은 구조를 가진 의미망에서 보면, A와 D는 많이 다르지만 B와 C라고 하는 연결망을 통해 한 범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구조를 지닌 범주를 가족 유사성 범주라 하고 원칙적으로 의미연쇄 내의 마디들은 많은 의미 확장의 근원이 될 수 있다(Taylor 1995). 이러한 의미연쇄는 다의어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많은 이점이 있지만 다의어의 의미구조가 모두 의미구조가 모두 의미연쇄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구조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의미망 구조’이다.

다의어에 대한 의미망 접근 방법은 한 낱말의 의미는 그 낱말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개별 의미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의미망이라고 주장한다. Brugman(1981), Lakoff(1987) 등은 의미망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전치사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다의어가 지니는 여러 가지 개별 의미들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은 핵심 의미 접근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의미망 모형을 통해서 그 체계적 관계가 잘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angacker(1999)는 한 어휘의 의미를 Brugman의 확대와 Lindner의 도식과 실례 관계가 통합된 확대관계, 도식과 실례관계와 유사성 지각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있는 의미망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다의어의 의미망 구조는 핵 의미와 의미 연쇄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는데 있다. 본 논문이 앞으로 제시할 전치사 over의 의미 확대 현상도 Langacker가 내세우고 그들의 장점이 통합된 의미망 모형을 이용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2.2 원형이론

인지문법은 고전적 범주 이론을 버리고 원형이론(prototype theory)을 받아들인다. 원형이론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능력과 범주화의 능력에 관한 생각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인간의 정신이나 이성은 어떠한 것인가에 관한 우리의 의식도 바꿔놓고 있다. 그리고 원형이론에서 범주화는 인간의 경험과 상상력에 관계되므로 한편으로는 지각, 신체활동, 문화의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은유, 환유, 심적 이미지의 문제이다(Lakoff 1987).

원형이론은 범주가 원형을 중심으로 짜여 범주화 판단은 유사성에 기준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범주화 판단이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식으로 내려질 수 없으므로 가장 원형적인 것에서 가장 덜 원형적인 것 사이에 유사성 정도 즉 원형 효과(prototype effects)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akoff(1987)는 원형효과란 원형과 구성원들 사이의 전형성 차이 혹은 범주 구성원들 사이에서 지각되는 구성원 자격에서의 등급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인지문법은 이러한 범주화 이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문법을 경계 뚜렷한 부위들로 나누거나 주변적인 실례들을 무시한 채 이분법적 원근법으로 양분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Rosch(1977)는 여러 번에 걸친 인지 심리적 실험들에서 자연 범주들은 원형적인 실례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원형들은 우리의 경험에 가장 자주 나타나고 가장 일찍 배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 원형이 인지적으로 심리 속에서 현저한 지위를 누리고 있음을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비원형적 구성원들은 원형이 닮은 정도에 따라서 범주에 동화되며, 구성원 자격의 판단은 정도의 문제이므로 원형과 가장 많이 닮은 구성원은 범주의 중심적 구성원이 되는 반면, 적게

닿을수록 주변으로 밀려나서 범주에 동화될 가능성 또한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over의 다양한 의미들 속에서도 ‘위쪽’, ‘활모양’, ‘덮음’이라는 가장 전형적인 예인 원형이 존재하고 비원형적인 구성원들은 원형에 닮은 정도에 따라서 범주에 동화된다.

인지언어학에서 다의어의 각 의미들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방법인, 어휘 항목의 원형적 사용에 대한 고찰은 어휘 항목들이 의미의 기본 범주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기본 범주화된 의미들과 다른 의미들이 결합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한 단어의 어떤 의미들은 다른 의미들에 비해 보다 더 전형적인 의미를 가지고, 한 단어의 의미들은 개념적 은유와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더욱 밀접하거나 혹은 덜 가까운 관계를 가지게 됨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다의어를 설명해주고 있다.

2.3 인지문법

1976년 이래로 Langacker는 그동안 언어학을 주도해온 Chomsky의 표준이론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언어이론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 이론은 인지문법(Cognitive Grammar)으로 불리는데, 이 모형은 인간의 언어활동이 일반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법 구조와 의미구조는 서로 분리시킬 수 없고 인지 과정의 언급 없이는 기술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지 문법의 이론적 기초를 다진 Langacker(1983)는 언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 첫째, 의미는 곧 ‘개념화(conceptualization)’이다. 개념화는 어떤 사물이 지니고 있는 의미란 그것을 접한 사람이 그 사물에 대하여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의미론은 사고 및 개념과 같은 추상적인 개체의 구조 분석과 명시적 기술을 시도해야

한다. 개념화라는 용어 속에는 고정된 개념은 물론 새로운 개념화, 감각, 운동, 정서적 경험, 그리고 사회·물리·언어적 맥락의 인식이 포함된다(이기동 2000).

둘째, 자주 쓰이는 표현은 전형적으로 서로 관련된 의미망을 이룬다. 언어의 의미는 그것과 관련된 의미망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ring'의 원형적 의미는 반지인데, 그와 유사한 코걸이를 'ring'이라고 한다면, 이는 확장 관계로 명시되고 반지와 코걸이는 '둥근 장신구'라는 공통된 추상적인 '도식(schema)'에 의해 형성된 의미망을 이루게 된다(이종열 2003).

셋째, 언어의 의미구조는 '인지 영역(cognitive domain)'과 관련을 지어 서 설명이 된다. 하나의 개념은 다른 개념을 전제로 하며 이 전제된 개념이 주어진 개념의 출현과 특징화의 기초를 제공해 준다. 예컨대, 직각 삼각형의 빗변은 직각 삼각형을 전제로 하고, 이것이 없이는 직각 삼각형의 빗변이 존재할 수 없다(김영원 2003). Langacker(1987)에 의하면 이처럼 한 특정의 개념을 적절히 명시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체계 속의 인지영역과 관련지어야 한다. 인지적으로 더 환원할 수 없는 원초적 표상 영역을 기본 영역이라고 하는데 시간영역, 2·3차원의 공간영역, 색채영역, 음조영역 등이 있다.

넷째, 의미 구조는 '바탕(basic)'에 '윤곽(profile)'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이종열 2003). 칼의 경우 기능, 모양, 다른 식기류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 한 낱말의 의미적 바탕은 여러 인지영역의 집합체일 수 있다. 그 바탕의 어떤 부분이 특이한 단계의 현저성으로 높여져서 초점으로 쓰이게 될 때 모습이 된다. 예컨대,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쭉한 물체: 꼭지, 천죽망: 삼촌 등에서 전자는 바탕이며, 후자는 윤곽이다.

다섯째, 의미 구조는 '관습적 영상(conventionally imagery)'을 포함하

며, 특정한 방식에 따라 상황을 해석한다. 영상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포함되는데, 앞에서 본바탕-모습, 대상의 규모, 구체성의 층위, 원근화법 등이 있다(김영원 2003).

지금까지 인지 문법에서 의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 가정들을 살펴 보았다. 다음은 인지 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over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영상도식과 탄도체 및 지표에 대한 설명이다.

2.3.1 영상 도식

영상도식(image schema)은 우리가 신체적 활동들에서 추출된 공통성 즉 반복 본이라 할 수 있다. 영상도식은 우리가 주변의 세계를 탐색함으로써 얻어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규칙성이라 할 수 있다(김종도 2002). 이렇게 보면 객관적 현상의 해석이 영상도식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영상과 영상도식 사이에는 분리될 수 없는 통합적인 부분-전체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는 영상도식이 다른 영역에까지 은유적으로 확대되어 쓰이므로 거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상도식은 우리의 행동과 지각과 개념에 본을 제공하고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Lakoff(1987)는 영상도식이 인지적으로 실재할 뿐만 아니라 게슈탈트(gestalt)²⁾적인 형상을 이루어 부분들의 단순한 집합 이상의 구조 지어진 전체가 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영상도식이 공간적 사고에서도 내적인 논리를 부여한다고 본다.

2) 게슈탈트는 20세기 초 독일을 중심으로 발달한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사용한 용어로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심리과정의 요소를 통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전체구조로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게슈탈트는 사물을 전체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체가 부분의 총화 이상이라고 하는 합성성의 원리(principle of compositionality)를 주장하는데 이러한 게슈탈트 작용은 비교행위와 비교사슬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인지 능력 덕분에 가능하다(김종도 2002).

영상도식은 동적이어서 영상도식이 언제나 동일한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영상도식이 두 가지 점에서 동적인 성질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첫째, 도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경험을 구조 짓는 활동 도식이다. 둘째, 영상도식은 변화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실례들을 받아들여서 수정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이 유연성은 변형으로 실현된다(김종도 2002).

본 논문의 over 분석에 사용되어진 그림을 통한 영상 도식은 Langacker(1982)의 인지문법에서 빌려온 것이다. 그림을 통한 영상 도식은 공간적인 관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나타내 주고 우리가 경험한 게슈탈트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제시하는 영상도식은 중심적인 의미의 도식으로부터 변이(deviation)되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며, 의미의 연관성을 설명함으로써 새로운 의미의 over를 사용할 때 이미 존재하는 도식으로부터 유래되었음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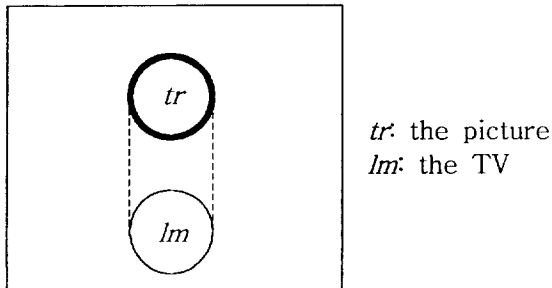
2.3.2 탄도체와 지표

Langacker(1987)가 도입한 용어에 따르면 탄도체(trajector: *tr*)는 두 물체를 맺는 관계 서술에서 일반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참여자를 말하고, 지표(landmark: *lm*)는 탄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참조점(reference point)이 되는 것을 말한다. 탄도체와 지표는 인간의 동작을 나타내는 말에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말에까지 확대되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탄도체와 지표의 개념은 주어와 목적어의 구분에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광범위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전치사는 탄도체와 지표 관계에 많은 다른 국면들을 부각시킬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구별이란 동적인 관계와 정적인 관계 사이의 구별이다. 탄도체와 지표의 관계가 정적이라면, 전치사는 탄도체의 위치를 지시한다. 이와는 달리, 탄도체와 지표의 관계가 목표(goal)에 도달한 동적인 관계(이 경우는 탄도체 이동의 끝점이 부각됨), 출발점(source)을 떠나는 동적인 관계(이 경우는 탄도체 이동의 출발점이 부각됨), 그리고 경로(path) 상에 있는 동적인 관계(이 경우는 탄도체가 이동하며 남기는 탄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시함)일 수 있다. 탄도체와 지표의 모양, 크기, 차원이라는 측면과,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접촉성 여부,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거리, 지표와 관련한 탄도체의 방위(예: 위/아래, 안/밖) 등의 차원이 고려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특정한 전치사가 탄도체-지표 관계의 매우 특이한 언어의 특징적인 어떤 측면을 부호화 할 수 있다(정영식 1998).

다음의 <그림 1>은 over의 원형적 의미인 '위쪽'을 영상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때 참여자인 the picture가 탄도체가 되고 the TV가 지표가 된다.

<그림 1> '위쪽'의 일반적 도식



(1) The picture is *over* the TV.

본 연구에서는 *over*가 지닌 여러 의미들을 이러한 탄도체와 지표를 이용한 영상 도식을 통해 설명할 것이다.

2.4 은유

인지언어학에서는 인간이 개념화되고 범주화하는 다양한 양상들 중에서 은유(metaphor)를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 왔고, Lakoff의 연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언어에 관한 고전적 이론에서 은유적 표현들은 일상적 언어의 영역과는 상호 이질적인 것으로 가정되었고, 일상적 언어에는 은유가 없으며 은유는 일상의 관습적 언어 영역 이외의 과정에 사용된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Lakoff & Johnson(1980: 3-6)은 은유를 비일상적 언어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개념 체계가 은유적이기 때문에 은유가 일상 언어와 사고에 만연해 있으며 우리의 행동 양식 자체가 은유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인지언어학자들은 언어적 지식이 일반적인 생각이나 인식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생각의 틀을 언어에 반영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은유라고 제안했다(Saeed 1997). 그들은 은유의 요체는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은유의 목적이 우리의 이해에 있음을 밝힌다. 그래서 은유는 내재적으로 구조지어지지 않은 활동들에 구조를 부여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Time is money.'라는 은유는 time 영역과 money 영역의 사상(mapping)관계이며 time이라는 목표영역을 money라는 근원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때 근원 영역(source domain) 속의 단어의 의미는 보

다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따라서 근원 영역은 공간적 의미이고 목표 영역(target domain)은 추상적 의미이며, 공간적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로 간주된다(Brugman 1981).

Reddy(1979)는 영어의 백 가지도 넘는 인어표현을 통해 아이디어가 물건으로 비유되거나 생각이 도관을 따라 전달되거나 용기 속에 넣어 표현될 수 있음을 지적했는데 이와 같은 표현이 바로 은유이다. 은유는 다의어인 over의 기본 의미와 확장된 의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로, over의 기본적 의미가 여러 가지 확장된 의미로 변화해 가는 현상은 바로 은유적 확대(metaphorical extension)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over의 추상적이고 비원형적인 의미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원형적인 기본 의미들을 통해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은유이다(최영란 2003). 이와 같이 은유는 추상적인 현상을 개념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세계의 모형에 의존하는데 over의 각각의 의미들은 하나의 의미가 다른 의미로 옮겨가는 현상인 은유적 확대를 통해 구성되어지게 된다.

3. over의 의미 분석 및 의미망 구성

3.1 over의 기본적 의미

over의 기본적인 의미는 탄도체가 지표의 위쪽에 있는 관계이다. 이 기본의미에서 정점, 덮음이 생겨나게 된다. 이기동(1998)은 over의 기본의미가 탄도체는 지표의 위쪽에 있고 지표보다 더 크거나 같은 관계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더 크다는 의미는 탄도체와 지표의 실체를 평면적일 수도 있고 수직적인 관계로 나타 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over는 확장된 추상적인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들은 위의 기본적인 의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over의 가장 중심적인 의미인 위쪽의 의미부터 활모양, 덮음의 순으로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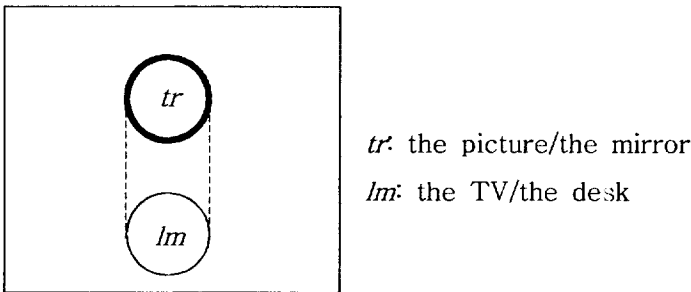
3.1.1 위쪽

over가 '위쪽'라는 의미를 가질 때 over는 전치사 above의 의미와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탄도체나 지표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다. 이때 over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로나 경계가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경계나 경로가 생길 경우 경로는 한쪽 경계에서 다른 경계로 지표를 가로질러 뚫어 있어야 하며 지표의 위에 위치한다. 둘째, 탄도체와 지표의 접촉관계에 있어서 중립적이다. 이는 접촉을 할 수도 있고 접촉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3.1.1.1 수직 · 비접촉 · 정적

먼저 탄도체가 지표의 수직선상의 위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정지하여 위치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경우를 살펴보자. 이때 *over*는 정지된 상태로 일정한 시간을 머물러 있는 정적인 관계를 묘사한다. ‘정적’이라는 말은 ‘어떤 영역 내에서 동시에 전체를 볼 수 있는 정적인 형상으로 개념화 된다’는 의미이다(송지연 2001). 아래의 예문은 탄도체가 지표의 위쪽에 위치한 수직 · 비접촉 · 정적인 관계이다.

<그림 2> 탄도체가 지표의 위쪽에 위치한 수직 · 비접촉 · 정적인 관계



(2) a. The picture is *over* the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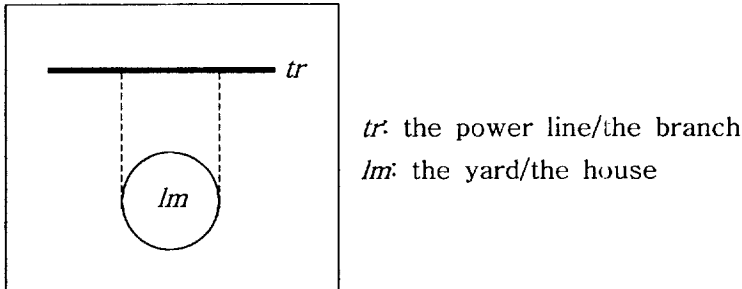
b. He looked at himself in the mirror *over* the desk.

예문 (2)에서 탄도체(*tr*)인 the picture와 the mirror가 지표(*lm*)인 the TV와 the desk 위쪽의 수직선상에 비접촉한 상태로 정지하여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over*가 위쪽의 의미를 가질때 탄도체가 1차원적인 경우를 나타낸 도식이다. 탄도체가 지표의 수직선상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정지하

여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림2>와 동일하나 탄도체가 1차원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최영란 2003).

<그림 3> 1차원적 탄도체가 지표의 수직선상에 위치한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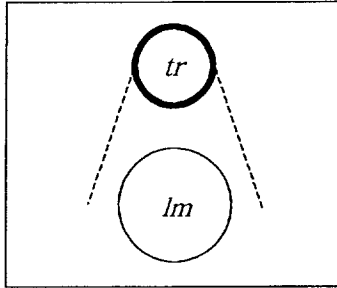


- (3) a. The power line stretches *over* the yard.
- b. The branch hangs *over* the house.

예문 (3)에서는 1차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탄도체가 수직선상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이며 탄도체인 the power line과 the branch는 지표인 the yard와 the house의 수직선상의 위쪽으로 뻗어있고 비접촉 관계를 가진다.

아래의 도식에서도 마찬가지로 *over*는 탄도체가 일정시간 동안 지표위에 정지하고 있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며 *over*의 기본의미는 탄도체가 지표와 떨어져서 위쪽에 위치하고 그 크기가 지표보다 크거나 비슷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탄도체 자체의 크기는 지표보다 작아서 *over*의 기본의미와 상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결과를 살펴보면 지표보다 훨씬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탄도체의 영향력이 지표의 면적보다 큰 관계



tr: the lamp/the sun
lm: the table/us

- (4) a. The lamp is *over* the table.
 b. The sun is *over* us.

예문 (4)에서는 탄도체의 영향력이 지표의 면적보다 큰 관계로 탄도체가 비록 지표보다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실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힘이나 영향이 지표보다 크고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4a)는 탄도체인 the lamp와 the sun의 크기 자체는 지표인 the table과 us보다 작지만 램프가 비추는 빛의 범위는 테이블을 훨씬 넘어서 비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over*가 ‘수직 · 비접촉 · 정적’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수직으로 위쪽에 위치하고 탄도체가 공간적 관계에서 지표와 접촉하지 않고 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 관계가 성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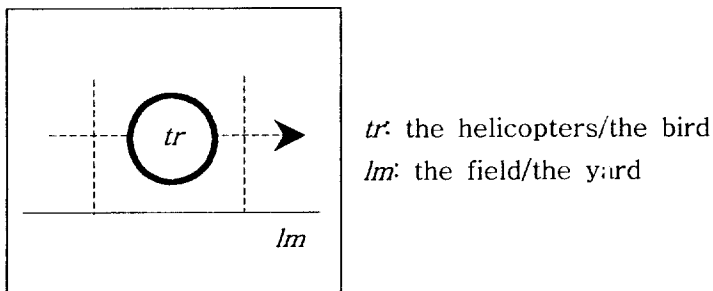
3.1.1.2 동적

탄도체와 지표관계가 목표에 도달한 동적인 관계로 이동의 출발점을

떠나는 관계로 탄도체가 선을 그리며 지표의 경계를 지나는 것은 '동적'인 범주의 핵심이다. 그리고 *over*가 '동적' 의미를 만족시키는 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접촉에 관해 탄도체와 지표는 접촉할 수도 있고 접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지표의 형태나 모양에 대한 제약이 없다. 즉, 지표는 지점이 될 수도 있고 수평적일 수 있다. 또한 수직적인 형태일 수도 있고, 수평적이면서 수직적인 면을 형성할 수도 있다(Lakeoff 1987). 셋째, 경로가 생긴다.

다음으로 구체적 예문들을 통해 '동적'인 의미를 가지는 관계를 살펴보고 하겠다.

<그림 5> 탄도체가 동적이며 지표가 수평인 비접촉 관계



(5) a The helicopters flew *over* the fi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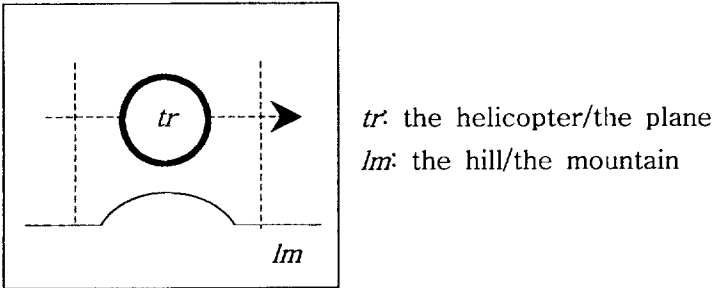
b. The bird flew *over* the yard.

먼저 <그림 5>는 탄도체와 지표가 비접촉 관계로 동적인 탄도체가 수평인 지표 위로 뻗어있는 관계를 보여준다. 예문(5)에서 탄도체 the helicopters와 the bird는 지표 the field와 the yard를 가로질러 날아간 대상이 되며 탄도체가 이동한 경로를 화살표를 통해 나타낸다. 이때 탄

도체와 지표는 비접촉 관계로 지표가 the field와 the yard가 되므로 수평으로 뻗어있는 형태를 지니고 있다.

아래의 도식은 지표가 수평으로도 뻗어있고 수직적인 면도 가진 복합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림 6> 탄도체가 동적이며 지표가 수평·수직인 비접촉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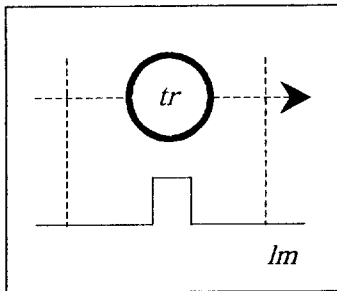
(6) a. The helicopters flew *over* the hill.

b. The plane flew *over* the mountain.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도체는 지표에 대해 수직적이고 지표와 접촉하고 있지 않으며 어느 정도 떨어져서 지표 한 쪽 끝에서 다른 한 쪽 끝을 지나간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지표인 the hill과 the mountain은 수평으로도 뻗어있고 수직적인 면도 가진 복합적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림 7>는 the wall이나 the fence가 지표가 되므로 탄도체가 수직으로 뻗어있는 지표를 지나게 된다. 즉 지표가 수직인 비접촉 관계로 탄도체 the bee와 the bird는 수직으로 뻗어있는 지표 the wall과 the fence를 통과하게 된다.

<그림 7> 탄도체가 동적이며 지표가 수직인 비접촉 관계



tr: the bee/the bird
lm: the wall/the fence

- (7) a. The bee flew *over* the wall.
 b. The bird flew *over* the fence.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ver*의 의미에 있어서 지표의 모양이나 형태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즉, 탄도체는 지표에 대하여 수직적이며 지표와 접촉하고 있지 않으며 어느 정도 떨어져서 지표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을 지나간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관계는 동적인 관계가 성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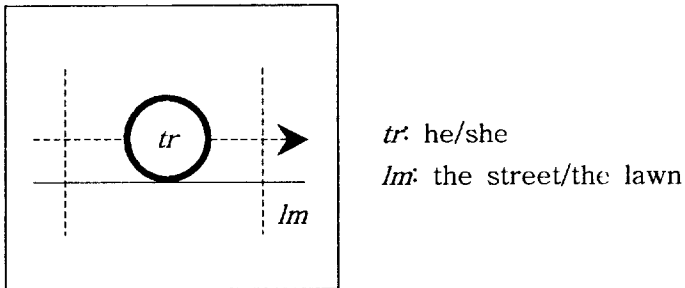
3.1.1.3 접촉

비접촉 관계를 나타내는 (5)에서 (7)까지의 예문에서는 탄도체와 지표가 서로 떨어져 위치해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over*가 '위쪽'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탄도체와 지표의 접촉관계에 있어서 중립적이기 때문에 접촉을 허용한다. 이때 탄도체와 지표는 서로 접촉하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탄도체가 지표를 가로질러 뻗어 있으며 지표의 위에 위치하게 된다.

아래의 예문은 지표가 수평인 접촉관계로서 경로가 생기고 그 경로는

한쪽의 경계에서 다른 한쪽의 경계로 지표를 가로질러 뻗어 있다. 예문 (8)은 탄도체 he와 she가 평면적인 지표 the street와 the lawn을 가로질러 이동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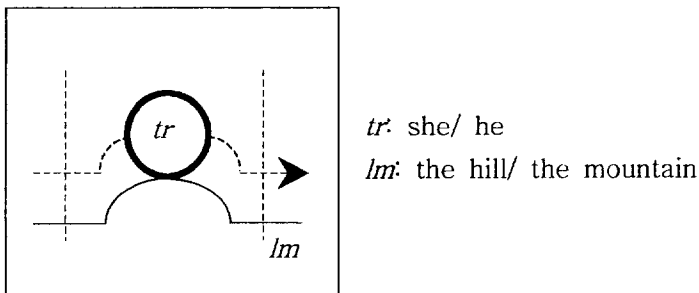
<그림 8> 탄도체가 동적이며 지표가 수평인 접촉 관계



- (8) a. He walked *over* the street.
b. She ran *over* the lawn.

다음 <그림 9>와 <그림 10>은 지표의 형태상의 특성에서 차이가 생길 뿐 모든 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접촉관계이다.

<그림 9> 탄도체가 동적이며 지표가 수평·수직인 접촉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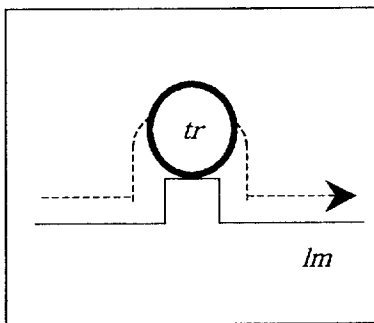


(9) a. She walked *over* the hill.

b. He climbed *over* the mountain.

먼저 <그림 9>는 지표가 수평 형태와 수직 형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합 형태를 띠는 접촉관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다음의 <그림10>은 탄도체가 지표와 접촉하여 이동하는 관계 중 지표가 수직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10> 탄도체가 동적이며 지표가 수직인 접촉 관계



tr: the monkey/the thief

lm: the wall/the fence

(10) a. The monkey climbed *over* the wall.

b. The thief climbed *over* the fence.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림 8>에서 <그림 10>까지는 앞서 살펴본 <그림 5>와 <그림 7>의 도식과 '접촉'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동일한 특성을 가진다. 즉, 경로가 생기고 그 경로는 한쪽의 경계에서 다른 한 쪽의 경계로 지표를 가로질러 뚫어 있으며 지표의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탄도체와 지표가 서로 접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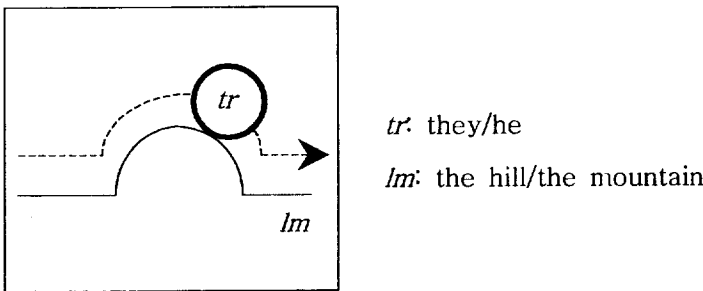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3.1.2 활모양

활모양 의미의 *over*에서 탄도체가 지표를 넘는 경우 정점을 기준으로 곡선 또는 활모양의 형태를 갖는다. 이때에는 정점을 가진 지표가 그 경로를 따라 서 있는 일종의 장애물이 되어 탄도체가 그 장애물을 넘는 모습을 나타낸다.

다음은 탄도체가 언덕이나 산과 같은 3차원의 지표를 접촉해서 넘는 경우이다.

<그림 11> 탄도체가 3차원의 지표를 넘는 접촉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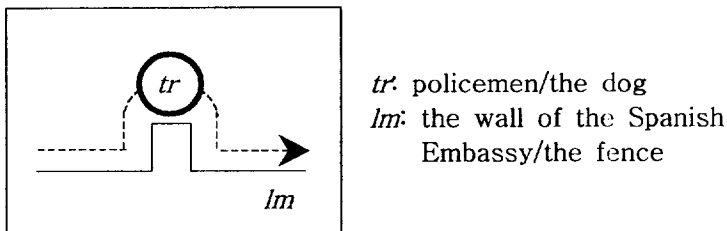
- (11) a. They walked *over* the hill.
b. He climbed *over* the mountain.

(11)의 예문은 탄도체의 지나간 경로가 지표와 수직을 이루고 있으며 탄도체와 지표가 접촉해 있다. 즉, 언덕을 넘어갈 때 사람이 먼저 위로 올라가서 꼭대기에 닿고 그리고 나서 내려간 경우로 지표인 the hill과 the

mountain은 탄도체가 지나간 경로를 따라 위치해 있으며 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각각의 지표는 정점을 기준으로 일종의 장애물이다(정영식 1998).

<그림12>의 문장은 탄도체의 지나간 경로가 지표와 수직을 이루고 있으며 탄도체와 지표가 비접촉 관계에 있다.

<그림 12> 탄도체가 3차원의 지표를 수직으로 넘는 비접촉 관계



(12) a. Policemen jumped *over* the wall of the Spanish Embassy in pursu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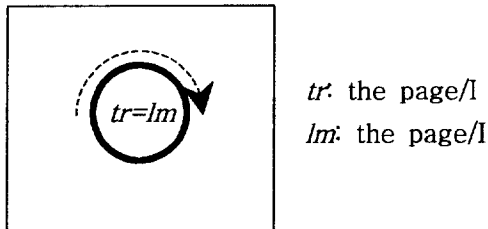
b. The dog jumped *over* the fence.

<그림 12>은 지표인 the wall of the Spanish Embassy와 the fence를 활 모양을 이루며 넘어가는 탄도체 policemen과 the dog를 영상 도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예문 (12)의 지표는 탄도체가 먼저 뛰어오르고 그 다음에 하강하여 넘어야만 할 장애물로 생각된다.

다음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역시 지표가 탄도체의 경로를 따라 위치하고 활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탄도체가 지나간 경로의 구부러진 정도가 180도나 360도로 변형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때 *over*는 지표 역할을 하는 목적어가 되는 명사구가 없기 때문에 탄도체와 지표는 같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over*는 전치사라기보다는 부사에 더 가깝다. 그러므로 다의성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통사적 기능과 절대적 위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림 13> 탄도체가 지표를 180도 회전하는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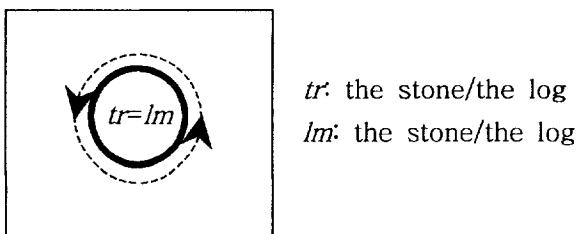


(13) a. He turned *over* the page.

b. I turned *over* and went back to sleep.

예문 (13a)는 탄도체 *the page*와 *I*를 넘기는 과정이 180도의 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경우이다. 즉, (13a)에서 페이지를 넘길 때 탄도체인 *the page*가 180도로 회전하고 (13b)에서도 역시 탄도체 *I*가 다시 돌아눕는 경우 *I*의 몸이 180도 회전하게 된다.

<그림 14> 탄도체가 지표를 360도 회전하는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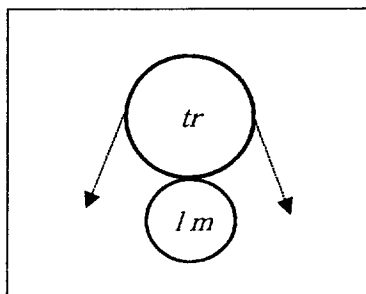
(14) a. He turned *over* the stone.

b. The log rolled *over*.

예문 (14)의 경우는 <그림 13>의 도식에서 탄도체의 이동경로의 범위가 좀 더 확장되어 변형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그림 14>은 곡선의 범위가 좀 더 확장되어 탄도체가 360도 회전하면서 지표를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 경우도 the stone과 the log은 탄도체이면서 동시에 지표가 된다. 즉, the stone과 the log을 탄도체로 구를 때 반대쪽에서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the stone과 the log의 나머지 한쪽을 지표로 봄으로써 the stone과 the log가 구르는 과정을 탄도체가 지표의 위를 통과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도식들은 탄도체가 한쪽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띠었으나 <그림 15>는 이러한 도식들의 변형으로 탄도체가 지표 위를 통과하는 경로가 한 방향에서 일정하지 않은 여러 방향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5> 탄도체가 지표의 여러 방향으로 이동하는 관계



tr: the water/the river

lm: the rim of the bathtub/its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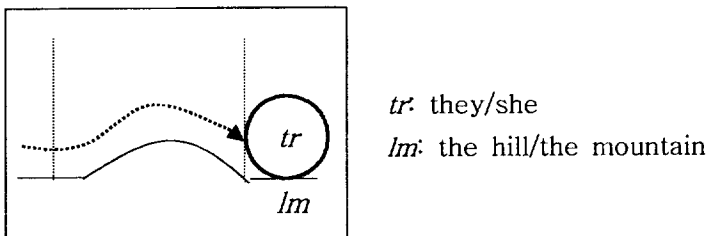
(15) a. The water flowed *over* the rim of the bathtub.

b. The river is running *over* its bank.

<그림 15>은 탄도체인 경로가 한 쪽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도식의 변형이라 할 수 있는데 탄도체 the water와 the river가 여러 방향으로 넘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도식이다. 이 도식은 탄도체가 지표 위를 통과하는 경로가 한 방향에서 일정하지 않는 여러 방향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문 (15)는 주어인 탄도체 the water와 the river가 목적어인 지표 the rim of the bathtub과 its bank를 훌러 넘쳐 여러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보인다.

다음의 경우는 탄도체와 탄도체의 경로가 지표의 양쪽 경계를 통과하고 탄도체가 분명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예문들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16)의 예문은 탄도체 경로의 종점(end-point)만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over*가 종료의 의미를 가질 때 탄도체가 지표를 통과하는 과정이 지나고 나면 탄도체는 지표의 종점에 위치하게 되는데 탄도체가 지표를 지나는 과정은 생략하고 이동경로의 결과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림 16> 수평 · 수직인 지표와 접촉 관계인 종점의 의미 관계



- (16) a. They live *over* the hill.
b. She is *over* the mount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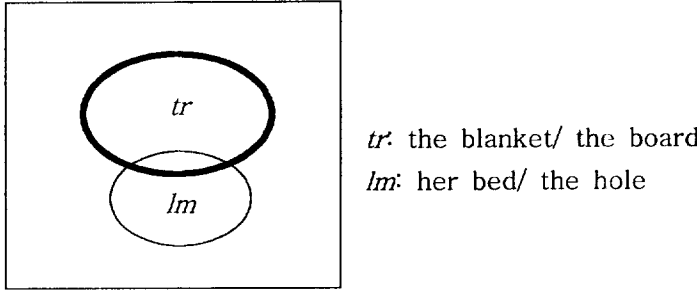
(16)의 예문은 탄도체인 *they*와 *she*가 *the hill*과 *the mountain*을 지나가는 과정은 보여주지 않고 언덕 건너편에 살고 있거나 반대편에 위치하고 상태만을 나타내고 있다.

*over*가 종점의 의미를 가질 때 탄도체는 경로의 시작점의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탄도체의 시작점은 화자가 발화하고 있는 장소가 되거나 문장 속에 명시되어지게 된다. 따라서 탄도체의 도착점은 주어 가리키는 대상이 되며 경로는 시작점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실현되므로 이제까지 살펴본 도식들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3.1.3 덮음

기본적으로 ‘덮음’의 의미 도식은 ‘위쪽’이라는 의미의 도식이 바뀐 형태로 볼 수 있다. *over*가 ‘덮음’의 의미를 가지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의 도식으로 탄도체는 지표의 수직선상의 위에 있고 지표면을 덮을 때 탄도체는 여전히 지표에 수직을 이루며 위치해 있다. 일반적으로 탄도체의 크기는 지표보다 크거나 비슷한 특징을 가지며 접촉에 있어서는 중립적이다. 아래 예문은 탄도체가 지표의 위를 덮고 있는 정적인 관계이다.

<그림 17> 탄도체가 지표의 위를 덮고 있는 정적인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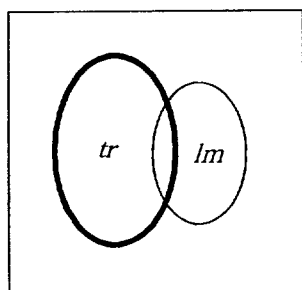
(17) a. She laid the blanket *over* her bed.

b. The board is *over* the ho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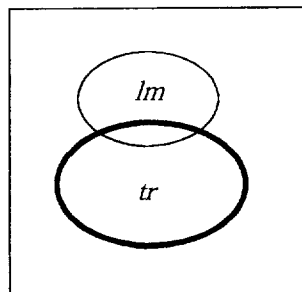
예문(17)의 공통점은 탄도체가 지표의 수직선상의 위쪽에 있는 관계를 나타내며 접촉에 있어서는 중립적이다. the blanket를 펴 놓은 면적과 the hole을 막고 있는 the board의 면적은 her bed와 the hole의 면적보다 넓으며 탄도체인 the blanket과 the board가 지표인 her bed와 the hole의 수직선상에서 덮고 있는 관계이다.

다음은 탄도체가 지표의 수직선상의 위에 있지 않은 정적인 관계로 탄도체가 지표의 옆이나 아래쪽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림 18> 탄도체가 지표의 옆이나 아래쪽에 위치한 관계



tr: the mask
lm: her f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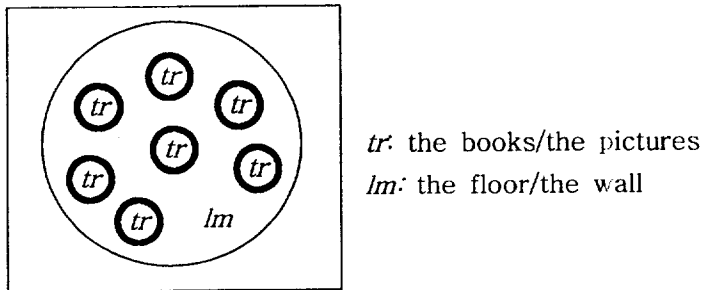
tr: bugs
lm: the ceiling

- (18) a. She held the mask *over* her face.
 b. There are bugs all *over* the ceiling.

(18a)에서 탄도체인 the mask는 지표인 her face의 공간상 옆쪽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고 (18b)는 탄도체인 bugs가 지표인 the ceiling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면적은 지표와 거의 비슷한 크기를 나타낸다.

다음은 탄도체와 지표가 일대일 대응을 하면서 정적인 여러 개의 탄도체가 2차원의 지표 위에 넓은 범위로 흩어져 있는 관계이다.

<그림 19> 다수의 탄도체가 넓은 범위로 흩어져 있는 정적인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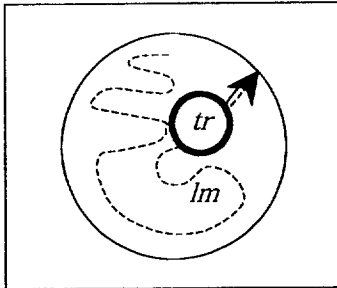
- (19) a. The books lay all *over* the floor.
 b. The pictures are scattered all *over* the wall.

<그림 19>에서처럼 탄도체인 the books가 지표인 the floor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으면서 수평 방향이 될 수도 있고, (19b)의 the wall처럼 수직이 될 수도 있다.

다음은 탄도체의 이동 경로가 지표 위를 덮은 관계로 탄도체가 이동동사와 결합하면 탄도체의 이동경로가 지표 위를 덮게 되는데 아래의 예

문은 하나의 탄도체가 경로를 가지면서 이동한 결과 그 경로가 지표 위를 덮게 된 경우를 나타낸다.

<그림 20> 탄도체의 이동 경로가 지표 위를 덮는 관계



tr: they/ he
lm: Europe/ the city

(20) a. They hitchhiked all *over* Europe.

b. He traveled all *over* the city.

<그림 20>는 탄도체인 they와 he가 이동한 지점들을 모두 연결하여 얻은 면적이 각각의 지표인 Europe과 the city의 면적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over*의 이동 경로를 나타 낼 때에도 역시 ‘덮음’의 조건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over*의 다양한 기본의미는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어떤 측면에서든 탄도체의 위치가 더 높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둘째, *over*는 정점을 기준으로 활모양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셋째, 탄도체와 지표 사이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덮음 관계를 나타낸다.

3.2 확장된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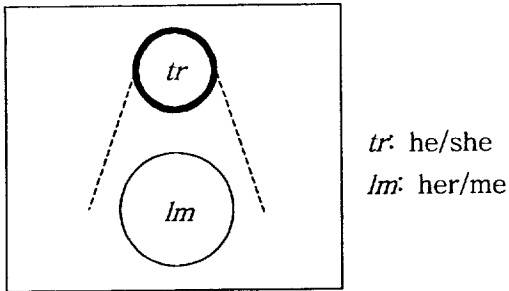
over의 확장된 의미의 도식들은 모두 기본적 의미가 파생되어 점차적으로 변화를 가진 것들이기 때문에 서로 의미가 다르게 쓰인 문장이라 하더라도 같은 도식을 공유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공간에서의 원형적 의미가 확대되어 추상적 물체의 관계를 묘사하는 은유적인 의미로도 사용된다. 확장 의미로 쓰인 over는 영향, 극복, 초과, 반복, 수단, 종료, 원인과 같은 기본의미에서 나온 다양한 파생된 의미들로 하나 이상의 체인을 통해 연결되며 이들 사이에는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다.

3.2.1. 영향

over의 공간적인 개념은 추상적인 힘이나 영향력 등의 관계에도 적용되어 탄도체가 지표보다 큰 관계를 나타낸다. over의 원형 의미 중 ‘위쪽’의 도식들 중에서 탄도체의 영향력이 지표의 면적보다 큰 비접촉 관계를 나타내었던 도식에서 확장된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탄도체가 비록 지표에 훨씬 못 미치는 크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힘이나 영향이 지표보다 크고 넓은 영역을 가지는 경우에도 over를 사용할 수 있다.

예문 (21)에서는 he와 she라는 탄도체와 her과 me인 지표의 관계가 수직 공간의 영역에서 영향력 관계의 영역으로 바뀌게 됨을 볼 수 있다. 이 때 영향력 관계는 전형적으로 수직 공간의 관점에서 개념화된다. over는 탄도체가 지표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공간적인 지표와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커다란 힘을 지닌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그림 4> 탄도체의 영향력이 지표의 면적보다 큰 관계



- (21) a. He's never had any influence *over* her.
b. She has no authority *over* me.

이제 *over*가 지배·우위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영향력을 가진 예문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다음 예문에서 나타나는 탄도체의 행위는 지표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관계에 있고 탄도체가 지표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러한 지배와 우위의 의미들은 탄도체가 지표의 위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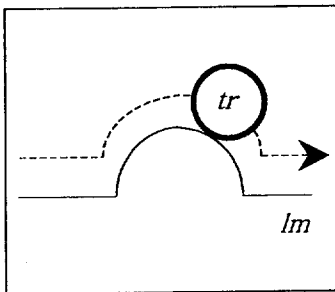
- (22) a. The king reigned *over* a country.
b. She is *over* the department now.

예문(22a)에서 탄도체 the king이 지표 a country 위에 군림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로 그 의미가 확대됨을 알 수 있고 (22b)는 탄도체인 she가 지표인 the department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경우이다.

3.2.2. 극복

극복의 의미를 가지는 *over*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장애물로 개념화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의미로 확장되는 경우이다. 또한 장애물을 넘는 경로를 지시하거나 어떤 활동이나 사건이 마무리되는 의미에도 사용된다. 극복은 기본적 의미인 활모양의 의미에서 파생된 것으로 지표가 장애가 되어 탄도체가 그 장애를 넘는 경로를 보여준다. 따라서 극복의 도식은 활모양의 도식과 일치하며 이때 탄도체와 지표는 접촉 관계에 있어서 중립적이다.

<그림 11> 탄도체가 3차원의 지표를 넘는 접촉 관계



tr: she/they

lm: the shock/the difficulty

(23) a. She was still getting *over* the shock of what she had been told.

b. They got *over* the difficul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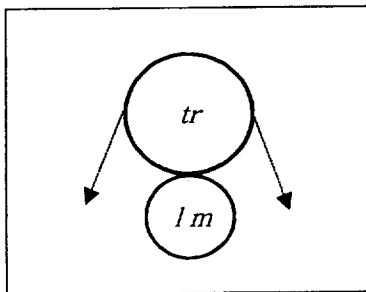
예문 (23)에서 탄도체 *she*와 *they*가 지표 *the shock*과 *the difficulty*라는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관계로 사용된다. 이러한 경우에 은유화가 가능한 것은 삶 자체가 하나의 경로로 해석되어 그 경로 상에서 사람이 겪는

여러 힘든 일들을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들로 인식한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3.2.3. 초과

*over*가 시간이나 수량의 의미를 가질 때 탄도체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초과하는 의미를 갖거나, 시간상으로 혹은 수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 <그림15>는 수량의 의미로 확장된 경우로 탄도체가 지표를 훌러넘치는 이동이 은유적으로 확장되어 추상적인 의미 즉, 초과 의 의미를 파생시킨 것이다.

<그림 15> 탄도체가 지표의 여러 방향으로 이동하는 관계



tr: cigarettes/the equipment/he

lm: a hundred thousand Britains/ £ 100m/55
years

- (24) a. Cigarettes kill *over* a hundred thousand Britains every year.
b. The equipment costs of *over* £ 100m.
c. He is *over* 55 years old.

(24a)의 탄도체인 cigarettes가 지표인 a hundred thousand Britains를 죽

이고, (24b)의 탄도체인 the equipment의 가격이 지표인 £100m보다 더 크며, (24c)에서는 탄도체인 he가 55 years보다 연령상 큰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over는 수, 돈, 연령에서도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용된다.

다음은 over가 초과의 의미를 나타낼 때 공간적 의미가 시간적 의미로 확대된 경우로 탄도체가 지표를 훌러넘친다는 일차적 의미에서 시간 개념으로 변형된 예이다.

(25) a. The war extended *over* 30 years.

b. We stayed there *over* Sunday.

예문 (25)에서 시간적 관계를 묘사하는 지표는 시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탄도체는 시간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문장 속에서 탄도체의 시간을 유추할 수 있다. 즉 (25a)에서 탄도체 the war이 지표인 30 years 이상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25b)의 경우에는 탄도체인 we가 그곳에 머무른 기간이 지표인 Sunday이후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들이 은유적으로 더욱 확대되면 (26)의 예문에서처럼 시간 대신 그 시간동안 이루어진 행위를 지표가 대신할 수도 있게 된다.

(26) a We discussed the problem *over* a glass of wine.

b. *Over* breakfast we discussed plans for the day.

예문 (26)은 over의 의미가 시간적 관계에서 확장되어 그 시간동안 이루어진 행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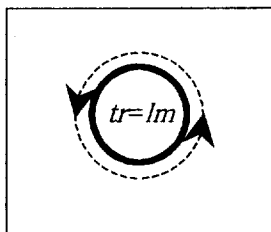
로 흔히 병행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즉 (26a)에서는 우리가 토의한 시간이 지표인 와인을 마신 시간보다, (26b)에서는 토의시간이 아침식사를 한 시간보다 더 길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3.2.4 반복

*over*의 확장된 의미 중 하나는 반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는 기본적 의미인 활모양의 의미 중에서 탄도체가 360도 회전하는 관계가 은유적으로 확장되어 반복의 의미가 파생된 것이다. 이때 탄도체의 경로는 행위의 과정으로서 은유적으로 이해된다. 중요한 것은 지표가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의 완전한 수행으로서 생각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림<14>에서 보이는 탄도체의 왼쪽 부분이 구르는 과정을 통해 경로를 가지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이와 연속되는 동작으로 오른쪽 부분이 역시 경로를 가지면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탄도체의 경로는 360도 회전하게 된다. 즉, 탄도체의 이동경로는 한 번의 과정을 거친 후에 또다시 그 과정을 반복하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탄도체의 경로가 은유적으로 확대되어 반복의 의미가 파생된다.

<그림 14> 탄도체가 지표를 360도 회전하는 관계



tr: the hassle/ the same songs
lm: the hassle/ the same songs

(27) a. He doesn't want the hassle all *over* again.

b. He plays the same songs over and over.

예문 (27)에서는 지칭하는 행동들이나 사건이 이미 한 번 행해졌고 같은 일을 한 번 더 되풀이하여 행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이때 탄도체와 지표는 거의 동일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다음 예문들을 통해 over가 반복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 (28) a. She said if she had the chance to do it *over*, she would have hired a press secretary.
b. You didn't sweep the floor very well, so do it *o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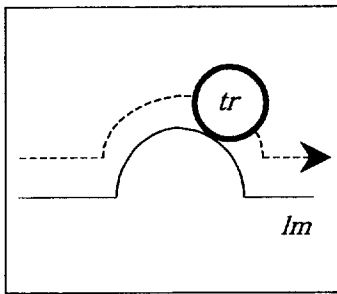
예문 (28)은 쉼표 앞에 나오는 문장속의 행동이 이미 이루어진 후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행위를 한 번 더 행할 것을 부탁 또는 요구하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위의 문장들을 도식화하면 행동이나 사건이 지표가 되고 그 지표의 행위를 반복하는 행동이나 사건이 탄도체가 된다. 반복의 의미를 가지는 over 또한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기본도식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은유적으로 확장되어진 것이다.

3.2.5 수단

수단의 의미를 나타낼 때 over는 탄도체가 말하거나 듣는 것과 같은 추상적인 내용과 지표가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주는 물리적인 매개체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되어 쓰일 수 있다. 수단의 의미인 over는 활모양에서 파생된 것으로 탄도체가 지표의 위를 활모양의 형태로 넘어 가는 과정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다.

over가 수단의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에는 탄도체가 지표의 위를 활모양을 그리며 이동함으로써 원래의 시작점에서 벗어나 현재의 위치로 옮겨가는 상황을 묘사하는 의미가 은유적으로 확장된 것이다. 예문을 통해 over가 수단의 의미로 사용될 때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림 11> 탄도체가 3차원의 지표를 넘는 접촉 관계



tr: announcements/address of the head of state

lm: the loud speaker system/the radio

(29) a. Announcements were made *over* the loudspeaker system.

b. The head of state addressed the nation *over* the radio.

(29a)는 탄도체인 announcements가 지표인 the loudspeaker system을 통해 청자의 귀에 들리게 된다. 그리고 (29b)에서는 탄도체인 the head of state의 연설이 지표인 the radio를 통해 the nation으로 전달된다. 이것은 전달 내용이 전달 수단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넘어가는 것을 형상화한 것으로 탄도체는 전달되는 내용이며 지표는 전달 수단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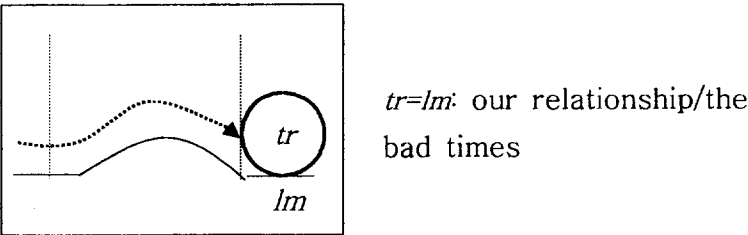
3.2.6 종료

over가 종료의 의미를 가질 때 도식은 종점의 의미를 설명할 때 나타

내었던 도식과 일치한다. 종점의 의미를 나타낼 때 탄도체와 탄도체의 경로가 지표의 양쪽 경계를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 탄도체는 분명한 경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탄도체의 경로의 결과인 종점만이 남는다는 점이 그 중심적 특징이었다. 즉, 탄도체가 지표를 통과하는 과정이 지나고 나면 탄도체는 지표의 종점에 위치하게 되는데, 탄도체가 지표를 지나는 과정은 생략하고 이동경로의 결과만을 나타내는 이 도식이 의미적으로 확장되면서 ‘종료’라는 의미가 생겨나게 된다. 종점의 의미를 나타내었던 도식과 종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도식을 비교해보면 보다 확실히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예시되어있는 예문들은 탄도체의 성질이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탄도체나 지표가 물리적 특성을 가질 때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은유적으로 확장되면서 시간적 개념이나 추상적 개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다음 예문들은 모두 *over*가 이동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문장 속엔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탄도체의 잠정적 이동 경로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6> 수평 · 수직인 지표와 접촉 관계인 종점의 의미 관계



- (30) a. Our relationship is *over*.
 b. The bad times were *over*.

(30)의 예문에서는 *our relationship*이나 *the bad times*라고 하는 탄도체 역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정한 통과의 과정을 통해 이동하여 그것이 끝나는 지점까지 경로를 가지며 그것이 시작점의 반대편 쪽에 도달했을 때 그 관계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이다.

(31)예문들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예문들은 모두 탄도체의 잠정적 이동 경로를 추정 가능하다.

(31) a. School will be *over* at three.

b. The rain is *over* and gone.

예문(31a)에서 수업이 세 시에 끝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시작점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수업 시작 시간으로부터 수업이 출발하여 세시라고 하는 종점에 도달하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하였으며 그 결과로 세 시에는 수업이 끝나게 되는 것이다. (31b)예문에서도 역시 비가 그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이전에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이 탄도체의 이동경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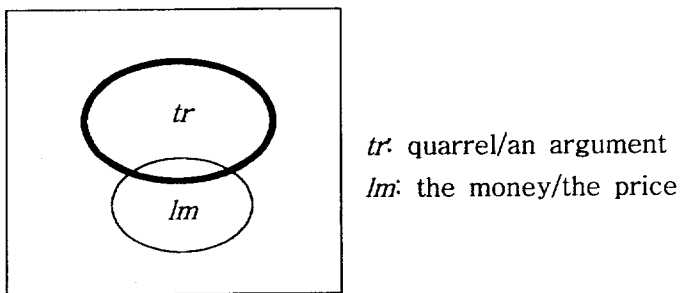
*over*가 '종료'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추상적인 탄도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쪽 방향으로 흘러감으로써 마지막 종점에 이르러 끝이 나는 결과를 가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3.2.7 원인

*over*는 감정이나 분쟁의 원인, 심사숙고의 뜻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어 지는데 이는 '덮음'의 의미에서 파생된 것으로 탄도체의 크기가 이러한

결과를 유발하는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지표보다 큰 관계를 보여준다. *over*가 원인의 은유적 의미로 쓰일 때에는 지표가 탄도체에게 영향을 미치며 ‘덮음’의 의미는 추상적인 것을 덮고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때 ‘덮음’의 전체 조건들은 확장된 의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over*가 원인의 의미를 가질 때에도 역시 탄도체는 지표의 경계를 통과하여 뺀어있고 탄도체의 크기가 지표보다 크거나 비슷한 특징을 가지며 접촉에 있어서는 중립적이다.

<그림 17> 탄도체가 지표의 위를 덮고 있는 정적인 관계



- (32) a. He and his wife quarreled *over* the money.
b. My friend and I had an argument *over* the price.

*over*가 분쟁이나 다툼의 원인을 나타낼 때의 예문들을 설명하면, 이때도 역시 탄도체가 지표보다 큰 관계를 묘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32a)예문에서 그와 그의 아내가 돈에 관해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탄도체는 사소한 것에 대한 분쟁이나 다툼이 되고, 지표는 이러한 분쟁이나 다툼의 원인이 되는데 이때 탄도체가 지표에 비해 커지는 것으로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 (32b)예문에서는 탄도체인 내 친구와 나의 논쟁이

그 논쟁의 원인인 물가 문제보다 더 큰 관계를 묘사해준다.

감정의 의미를 가질 때 *over*의 탄도체는 회로애락의 감정을 나타내며, 지표는 이러한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때 *over*는 탄도체가 느끼는 감정이 그 원인인 지표보다 크다는 것을 묘사한다.

(33) a. I sighed *over* my misfortunes.

b. We rejoiced *over* his success.

(33a)예문에서 I라는 탄도체가 my misfortune으로 인해 한숨을 쉬며 느끼는 감정이 지나칠 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하며, (33b)예문에서도 탄도체 we가 his success로 인해 기쁜 감정이 매우 컸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예문(34)에서는 대상체인 지표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탄도체의 생각의 깊이가 지표보다 큰 관계를 묘사해준다.

(34) a. I'm trying to mull *over* the suggestion in my mind.

b. I'm thinking *over* what they've said.

c. I looked *over* a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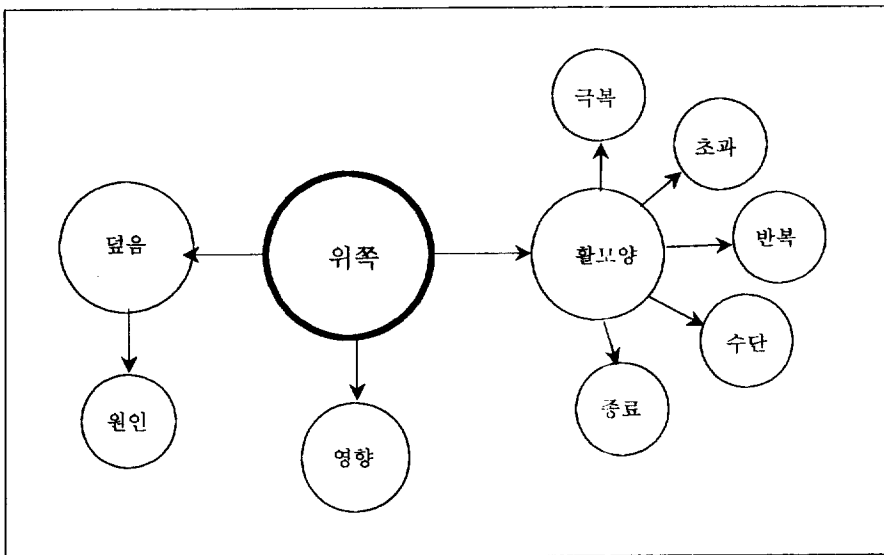
(34a)와 (34b)의 예문에서 탄도체는 깊이 생각하는 행위이고 지표는 깊은 생각을 유발하는 원천이 되는 제안과 그들이 말한 내용이다. 이 경우 탄도체가 지표보다 큰 관계를 묘사하기 때문에 지표이자 생각의 대상체인 제안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의 깊이가 더 크고 자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3.3 over의 의미망 구성

지금까지 인지문법의 관점에서 살펴본 over의 다의적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over는 세 가지 기본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기본 의미를 토대로 하여 확대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over의 기본적 의미는 '위쪽', '활모양', '덮음'이며, 이 중 over가 '위쪽'의 자질을 가질 때 가장 원형적인 의미가 된다. 이러한 기본 의미에서 over의 의미가 확장되어 영향, 극복, 초과, 반복, 수단, 종료, 원인의 의미가 생긴다.

over의 기본적 의미와 이를 토대로 확대된 의미를 의미망으로 구성해 보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전치사 over의 의미망



위의 의미망을 통하여 전치사 over에 관련된 의미가 일정한 인지적 틀

속에서 서로 체계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들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장된 의미들이 파생된 근원 영역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영향을 나타내는 over는 원형 의미인 '위쪽'에서 파생된 것으로 탄도체가 지표의 위쪽에 위치해 있다. 둘째, 극복의 의미로 사용되는 over는 '활모양'의 형태가 변형된 형태이다. 셋째, 초과 의미는 '활모양'의 의미 중 탄도체가 지표를 훌러넘치는 도식이 은유적으로 확대되어 수량이나 추상적인 개념에서 초과 의미로 나타난다. 넷째, 반복의 의미를 가질 때 도식은 '활모양'의 의미가 변형된 형태로 180도나 360도 회전하는 행위의 과정이 확대되어 처음 일어난 행위와 뒤에 일어난 행위가 일치하여 반복의 의미가 생겨난 것이다. 다섯째, 수단을 나타내는 over는 원형 의미인 '활모양'에서 파생된 것으로 탄도체가 지표의 위를 통과하는 과정이 은유적으로 확장된 것이다. 여섯째, '종료'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활모양'의 종점의 의미를 나타내었던 도식과 일치한다. 탄도체가 지표를 지나는 과정은 생략하고 이동 경로의 결과만을 나타내는 종점의 의미가 확장되어서 '끝나서'라는 의미가 생겨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over가 감정이나 분쟁의 원인을 나타낼 때는 세 번째 기본 의미인 '덮음'의 의미에서 파생된 것으로 탄도체의 크기가 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지표보다 큰 관계를 보여준다.

4.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인지문법을 바탕으로 전치사 over의 공간적 관계에서의 기본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추 및 확장된 의미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치사 over는 가장 원형적인 기본의미를 가지며 이것이 개념적 틀이 되어 추상적 영역으로 확장되어 여러 의미를 나타내며 의미 간에는 서로 체계적 연계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over 분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는 인지언어학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over 분석의 기본 전제가 되는 특징인 다의어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다의어란 하나의 어휘항목이 관련된 의미의 집합체와 연계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그 의미들이 어떤 모습으로 구조화 되는지는 밝히기 위해 인지주의 관점인 의미연쇄 구조와 의미망 구조의 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원형이론을 통해 범주를 결정할 때 그 범주의 중심적이고 전형적인 성원들, 즉 원형이 있으며 그 성원과의 유사성을 가지고 범주를 인식한다는 원형이론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인간의 언어활동이 일반적인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지문법을 살펴보고 over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영상 도식 및 탄도체와 지표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over의 분석에 영상 도식을 사용한 것은 원형적 의미에서 추상적 의미로 확장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탄도체와 지표라는 자질을 통해 공간적 관계를 보다 명확히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over의 의미 확장의 주요 기제가 되는 은유의 본질과 체계성에 대해 살펴보고 over의 각 의미들이 은유적 확대 후에도 기본 의미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over의 공간에서의 기본 의미를 중심으로 이것에서 변형

된 의미 및 추상적 의미로의 확대 과정을 인지문법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over의 기본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위쪽', '활모양', '덮음'의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기본 의미에서 over의 의미가 확장되어 영향, 극복, 초과, 반복, 수단, 종료, 원인을 나타내는 의미로 확장된다는 것을 보았다.

본 논문에서 over의 모든 의미를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들을 도식과 예문을 통해 설명하고 기본의미에서 확장의미로 파생되는 과정을 도식 비교를 통해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관계들을 의미망을 통해 나타냄으로써 의미 확대의 방향성과 의미들 간의 연관성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나타내 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참 고 문 헌

- 김영원. 2003. *영어 전치사 above, on, over의 인지론적 의미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종도. 2002. *인지문법의 디딤돌*. 서울: 박이정.
- 소문무. 1987. *Over의 의미와 용법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정교. 1994. *Over연구 원형의미론과 도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지연. 2001. *전치사 over의 인지적 의미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신명석. 1988. *전치사 over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이기동. 1998. *영어 전치사 연구: 의미와 용법*. 서울: 교문사.
- _____. 2000. *인지언어학*. 서울: 한국문화사.
- _____. 2002. *인지문법에서 본 영어 동사*. 서울: 한국문화사.
- 이종열. 2003. *비유와 인지*. 서울: 한국문화사.
- 임지룡. 1999. *인지의미론*. 서울: 탐출판사.
- 정영식. 1998. Over의 의미분석과 응용. *현대문법연구* 13, 41-62.
- 조은영. 2001. *Over와 under의 인지적 의미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최영란. 2003. *Over의 다의성에 관한 인지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 Allerton, D. J. 1979. *Essentials of Grammatical Theo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Bolinger, D. 1977. *Meaning and Form*. London: Longman Group Ltd.
- Brugman, C. M. 1981. *The Story of 'over': Polysemy, Semantics, and the Structure of the Lexicon*. M.A. thesi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Caramazza, A & Grober, E. 1976. Polysemy and the Structure of the Subjective Lexicon. In Rameh, C. (Ed.) *Georgetown University Round Table on Language and Linguistics*, 181-206.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Collins COBUILD English Dictionary. 1995. London: Harper Collins Ltd.
- Hopper, P. 1991. *On Some Principles of Grammaticalization*. In Traugott and Heine, eds., 1: 17-35.
-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gacker, R. W. 1983.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_____.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I: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김종도(역).
- 1999a. *인지문법의 토대 I*. 서울: 박이정.)
- _____. 1999. *Grammar and Conceptualization*. Berlin: Walter de Gruyter GmbH & Co. KG. (김종도 & 나익주(역). 2001. *문법화 와 개념화*. 서울: 박이정.)
- Reddy, M. 1979. The Conduit Metaphor: A Case of Frame Conflict in Our Language about Language. In *Metaphor and Thought*. (Ed.)

by Andrew Ortony, 284-32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sch, E. 1977. Human Categorization. In Warren, N. (Ed.) *Studie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1-49. Longman: Academic.

_____, Mervis, C. B., Gray, W. D., Johnson, D. M. & Boyes-Braem, P. 1976. Basic Objects in Natural Categories. *Cognitive Psychology* 8, 382-439.

Saeed, J. I. 1997. *Semantics*. Oxford: Blackwell.

Taylor, J. 1995.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 Theory*,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ittgenstein, L. 1958.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Oxford: Basil Blackwell.